



2013 수능 언어영역 ‘시’

수능 시,
그대로
읽어라!

지근성

 오르비

안녕하세요 ㅎㅎ 슈곰입니다!
시중에 비문학에 대한 방법론, 기본서 등은 많이 나와 있는데
시가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제시하거나
시가를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서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쓰기로 했습니다 ㅎㅎ

시가 뭘까요?
시는 자기가 쓰고 싶은 주제에 대해
나름 느낌 있게 쓴 글 정도??

많은 학생들은 시를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들었으면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도
시에 나오면
'뭘가 있을거야.' 하면서 스스로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시를 수능답게 해석하려면
이런 색안경을 벗어 던지고
시가 생겨먹은 그대로를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시는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상황? 그에 대한 정서?
저도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웠는데
해본 사람은 알텐데
시 하나에 상황이 하나도 아니고
뭘라고 딱 정하기도 애매하다는 거.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이걸로만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해석하면 됩니다 ㅎㅎ
수능에서 뭘 물어보나요?
내용 묻거나 표현 묻거나
둘 중 하나 묻는 거 아닌가요??
내용 알고 표현 알면 시 다 아는 거잖아용
그쵸?

우선 시 내용을 알려면
시어의 의미부터 파악해야 하는데요
제가 시어를 파악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대로 읽기!!
둘째는 문맥적 읽기!!

★1-1. 시어파악 : 그대로읽기

시를 볼 때 그대로 읽어라.

이 말은 저한테 말고도

몇 번 들어 봤을거 같은데요

그대로 읽으라는 말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공부할 때는 다시 또 쓱 읽고 원래 하던대로 공부했겠죠?

왜냐면 그대로 읽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안 알려줬으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대로 읽으려면 수식하는 말과 서술하는 말을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바람'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딱 두 개!!

1. 앞새에 이는 거

2. 나를 괴롭히는 거

근데 앞새에 이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럼 바람의 의미는 나를 괴롭히는 거.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 찾으라고 하면

나를 괴롭히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산들바람 이런 거 찾지 말고 ㅎㅎ

근데 수식하는 말이랑 서술하는 말 둘다 별 의미없을 때가 있는데요

그럼 그 때는 시어의 의미를 파악 못하나?

ㄴㄴ. 그 땐 두 번째 방법을 쓰면 됩니다.

문맥적 읽기!

★1-2. 시어파악 : 문맥적 읽기

예를 들어봅시다
나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근데 눈이랑 같은 심상을 찾으라네
뭘 찾으면 되죠?
함박눈? 하얀겨? 차가운겨?
NO!
여기서 눈을 그대로 읽기 하면 뭐죠?
하늘에서 내리는 거.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 없죠
그럼 문맥적 읽기를 해야겠네요
첫 문장에 나는 행복하대요
근데 눈이 내려 그럼 이 눈은 앞의 구절로 판단해보면
행복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문맥적 읽기!

이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시어의 의미를 거의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물론 있어요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이 두개로 안 되면 안 물어보든가
보기로 알려주든가 그러니까요 ㅋㅋ

★2. 시 전체 파악 : 문맥적 읽기

그럼 시어의 의미 파악하는 걸 알았으니
전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아야겠죠?
전체 내용은 시에서 알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읽어나가면서
아리까리 하거나 잘 모르겠는 부분이 나오면
문맥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1연 : 그녀가 없어 그리워
2연 : 나는 땅에 손을 비비고 있다.
3연 : 그리워

2연이 생똥맞네요
이럴 때 앞 연이나 뒷 연의 내용을 가지고 유추하면 됩니다
땅에 손을 비비는 행동은 그리워서 하는 행동!! ㅎㅎ

또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역발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ㅋㅋ
어떤 말이나 상황을 뒤집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시에서 A로 가고 싶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왜 A로 가고 싶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A가 좋거나, 내가 있는 곳이 싫거나.
물론 둘 다일 수도 있죠 ㅎㅎ

구체적으로 시를 가지고 적용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추천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ㅎㅎ

추천사 - 서정주

향단아, 그넛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여기서 향단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춘향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밀어주는 아이죠.
문제에서 향단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상을 찾으라고 하면
어떤 대상을 밀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역발상을 해보면 춘향이는 바다가 좋아서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여기가 싫어서 가고 싶을 수도 있겠죠.

이 다수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벼갯모에 뇌이듯한 풀꽃데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꺾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수양버들, 풀꽃데미, 나비새끼, 꺾꼬리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떨어지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를 찾으라고 하면
떨어지고 싶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대상을 찾으면 되겠죠.
한편 1연에서 바다로 가고 싶은 이유를 역발상으로 생각해봤잖아요.
근데 2연에서 떨어지고 싶은 대상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대상들은 춘향이 있는 현실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춘향이는 현실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요.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올림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산호도 섬도 없는 공간으로 가고 싶네요.
그렇다면 산호와 섬은 없기를 바라는 대상입니다.
하늘은 내가 가고 싶은 곳 이구요.
구름은 어떤 것이지요?
내가 그것처럼 되고 싶은 대상, 혹은 가고 싶은 곳에 이미 올라가 있는 대상이지요.
왜냐면 구름같이 나를 올려달라고 했으니까요.
1,2연에서 역발상으로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좀 더 생각해볼게요.
1연에서는 바다로 가고 싶다고 했고,
자기가 있는 현실에서 떠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1연에서 바다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3연에선 갑자기 하늘로 가고 싶다고 하죠?

그렇다면 바다나 하늘로 가고 싶다가보다는 어디가 됐든 현실과 멀리 떠나고 싶은 거겠죠.

**서으로 가는 달같은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여기서 서는 달이 가고 싶은 공간이고,
달은 구름과 마찬가지로
내가 부러워하는 혹은 이미 서(가고싶은곳)으로 가 있는 대상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고 했으니 '달'의 의미가 하나 더 추가되지요.
나에게 좌절을 주는 대상.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여기서 바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시련? 고통? 아닙니다.
파도를 밀어 올려주는 것, 그러니까 향단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상이겠죠?
파도는 올라가고 싶어하는 대상이죠.
구름과 달과는 다르게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있지는 않지만
춘향이처럼 올라가고자 하는 존재죠.
파도가 하늘까지 올라가나요? 아니죠 ㅎㅎ
파도는 춘향아와 비슷한 상황인 대상이네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시 어때요? 참 쉽죠잉~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심한 윤동주님의 서시로 한번 더 도전해보겠습니다
서시에서는 시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 전체를 해석해볼게요~

윤동주-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서 바람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망할놈입니다. 그렇다몬(라임 ㅋㅋ)
여기서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상을 찾으려하면
나를 괴롭히는 대상을 찾으면 되겠지요.

앞새에 바람에 '도' 라는 표현을 통해
앞새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왜 괴로울까요? 명칭해서? 일제시대라서? 독립운동 하는게 힘들어서? 다 아니죠.
시 본문에 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문맥적으로 판단해야 해야겠죠.
내가 원하는게 무엇이라고 나와있나요?
'부끄럽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괴로운 이유는 부끄럽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바람은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상을 찾으라는 문제로 돌아가서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놈이 아니라,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나쁜시킴을 찾으시면 되겠죠?
선지에 그게 없으면 나를 괴롭히는 놈 찾으시면 되구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 별은 어떤 아이일까요 ㅎㅎ 내가 노래하는 대상입니다.
어떤 대상을 노래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대요.
그럼 죽어가는 것들은 내가 사랑하려는 대상이겠네요.
그 다음에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대요.
주어진 길은 무엇일까? 독립운동? 나니 그렇게 하는 게 주관이 개입된 거예요.
오로지 문맥!!!
내가 원하는 게 머라구요?
부끄럽지 않는것!!
그렇다면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행동과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행위는
둘 다 부끄럽지 않으려는 의지겠지요.
그럼 주어진 길은 당연히 부끄럽지 않는 행동 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 문제에서 길에 밀줄 치고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를 찾으라고 하면
부끄럽지 않은 행동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찾으시면 답이 되겠네요.
여기서 역발상 하나!!
그럼 난 언제 부끄러워질까요?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지 않을 때와
주어진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걸을 때 부끄러워지겠지요.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이걸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ㅎㅎ

별은 내가 추구하는 대상이고 바람은 날 부끄럽게 하는 존재이니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는 말은 부끄럽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밤에 '도' 라고 한 것으로 보아 부끄러운게 하루이틀이 아닌 걸 알 수 있겠죠.
당연히 밤은 부끄러운 행위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거구요.

어떤가요? ㅎㅎ
별 거 아니죠? ㅎㅎ
이제 표현법을 볼 건데요
수능에서 물어보는 표현들은 정해져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개념설명 들어갈게요 ㅎㅎ

★3. 표현법

◆ 각운

매 연마다 끝 음운이 같은 걸 말해요.

랩에서 라임처럼 ㅋㅋ

끝 글자니까 보통 어미가 되겠죠?

예를 들면 ~다. ~다. ~다. ㅋㅋ

◆ 감각적 이미지

오감(시,청,후,미,촉각)을 드러낸 표현을 말합니다

주로 자연물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죠 ㅎㅎ

ex) 단풍,꽃,눈 - 시각적 이미지

귀뚜리 소리 - 청각적 이미지

흙 냄새 - 후각적 이미지

◆ 감정을 직접 드러냄

말 그대로 감정을 직접 드러낸 걸 말합니다.

ex) 사랑한다. 슬프다.

◆ 감정이입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투영한 걸 의미하는데요.

자연물과 화자의 감정이 동일해야 감정이입입니다.

만약 자연물의 감정이 나와 상반된다면

그 자연물은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나 생각을 유발시키는 사물을 말합니다.

'객관적 상관물 = 감정이입 + 대조적 자연물 + 정서 반영'

대조적 자연물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나 태도와 반대 상황에 있는 자연물을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더욱 부각시키는 자연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황조가>에서

'훨훨 나는 피꼬리는 암수 서로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 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꼬.'

정서 반영은 감정이입은 아니지만 대상과 내가 하나 되는 몰아일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관동별곡>에서

'백구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

백구(갈매기)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죠. ㅎㅎ

◆ 계절감

계절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재를 말합니다.

ex) 눈, 단풍, 신록, 아지랑이, ~꽃(꽃은 항상 피는 계절이 정해져 있으니깐)

주의 - 소나무 같은 건 아닙니다 ㅋㅋ 소나무는 일년내내 있으니까요 ㅋㅋ

♣ 공감각(=감각의 전이)

어떤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옮겨감)을 말하는 거예요.

ex) 푸른 종소리 - 종소리를 청각인데 푸르다고 했으니까

청각을 시각화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주의 - 다른 감각 두개가 연달아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공감각은 아닙니다.

황토색 피리 부는 소리가 아름답다.

요론거 ㅋㅋ

♣ 관용구(관용적인 표현, 관습적인 표현)

속담이나 고사성어, 그리고 관습적인 표현들을 말합니다.

관습적인 표현이라함은 예를 들면

얼굴이 백옥같고

손은 섬섬옥수며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은 대체로 고전에 많이 나옵니다 ㅎㅎ

그런데 고전에 쓰이는 관습적인 표현들은 현대에는 안 쓰이는 게 많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고전에 쓰이는 관습적인 표현들은 대표적으로 몇 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어떤 느낌인지 아는 게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걸 몇 개 보다보면 생판 모르는 표현을 봐도

관습적 표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 대구

같은 구조가 반복된 걸 대구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구절을 예로 들어볼게요 ㅎㅎ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는 V1, ~는 V2 로 문장 형식이 같죠.

꼭 주어 서술어만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됩니다.

땅에서 자란 나무, 바다에서 얻은 생선

~에서 ~한 ~, ~에서 ~한 ~

♣ 대조

대조는 기본적으로 내용이 상반, 배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대구형식이 있을 수 있구요.

위의 예인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시어가 대조될 때도 있습니다.

특정 연끼리 대조될 수도 있구요

♣ 대화체

말 그대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문체입니다.
그런데 이건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딱 봐서 아 말하는 것 같다 싶으면 대화체라고 보시면 되구요
아니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ㅎㅎ

♣ 도치

말그대로 어순이 뒤바뀐걸 말해요.

♣ 반복/변용

반복은 2번 이상만 같은게 나오면 반복이라고 합니다
특정 음운도 되구요(ex)각운)
보통은 특정 어휘 그러니까 단어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변용은 조금 바꾸는걸 말해요
그러니까 비슷한거 ㅎㅎ

♣ 반어(irony)

표현과 내용이 대립되는 걸 말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말과 반대인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반어는 항상 문맥이 있어야만 판단 가능합니다.
ex)내가 그릇을 깨뜨렸더니 엄마가 그걸 보고 "잘~ 한다."라고 말하심
친구 개똥생겼는데 "와 너 진짜 잘생겼다. 대박" 이런거 ㅋㅋ

♣ 비유

비유는 직유, 은유, 의인, 활유, 대유 다 포함합니다 ㅎㅎ
직유는 -처럼, -같이, -인 듯, -인 양.
은유는 A=B, A의 B.
그렇지만 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은유는 아닙니다.
슈곰은 사람이다. 슈곰의 컴퓨터.
단순히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니
빗댄 건지 아닌지 판단해야겠죠.
한국인이라면 별 무리 없이 알 수 있을 겁니다. ㅎㅎ
내 마음은 호수요.
노스텔지어(향수)의 손수건.
원관념인 내 마음을 보조관념인 호수에 빗냈고,
원관념인 노스텔지어를 손수건에 빗냈네요.
원관념은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
보조관념은 빗댄 대상을 의미합니다.
대유는 전체를 부분에 빗대거나
부분을 전체에 빗댄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아는 유명한 예가 하나 있죠.

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기서 빵은 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빵이 식량에 포함되잖아요.

이런 게 대유입니다.

대유는 원관념이 없고 보조관념만 나타나지만,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포함관계가 있다는 게 상징과의 차이점입니다.

◆ 상승/하강 이미지

상승하는 건 상승이미지 ex) 아지랑이, 어퍼컷

하강하는 건 하강이미지 입니다. ex) 눈물

◆ 상징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떤 걸 비유하고 있긴 하지만 원관념은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함축성이 높겠죠?

시에서 상징은 있는데 비유가 없는데

선지에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그냥 맞다고 하면 돼요

수능에선 비유랑 상징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비유와 상징 사용하고 있다 OK 해도 되는 거예요 .

◆ 색채대비

말 그대로 색채(색깔)이 대비되는 걸 말합니다.

녹색 - 적색

하양 - 까망

요론거? ㅎㅎ

이건 꼭 색깔이 나와 있지 않아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난 화로 옆에 앉아서 마당의 죽순을 보고 있잖아

이래도 되는거예요 ㅎㅎ

화로랑 죽순이 색채대비가 됩니당.

◆ 색채어

색깔을 수능선지에선 색채어라고 합니다 ㅎㅎ

푸른, 붉은 이런거 ㅋㅋ

색채어 나오면 자동으로 시각적 이미지도 OK.

◆ 설의법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거 ㅎㅎ

ex)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너 미쳤냐?

♣ 수미상관, 수미상응, 수미쌍관

첫 연과 끝 연을 대응했다고도 하는데요.

첫 연과 끝 연이 똑같거나 비슷하면 됩니당 ㅎㅎ

♣ 시각적 이미지

꼭 색깔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눈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한 것들을 시각적 이미지라고 해요.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보면

빛이 나는 것들 - 달, 별, 해, 불, 빛

색깔이 도드라지는 것들 - 단풍, 꽃, 신록, 눈, 金

눈으로만 인식하는 것들 - 아지랑이, 금(금 간거)

모양, 모양이나 형태가 두드러지는 행위 - 벡타이처럼 구깃구깃한 길, 상승&하강이미지

여기에 + 색채어, 자연물

(이번 2012 6월 평가원을 보니 자연물은 모두 시각적 이미지에 포함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 시간의 흐름

수능에서 자연물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인동차 -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이 꺼졌다 켜진다는 말은 시간이 그만큼 흘렀음을 나타내지요.

그리고 별이나 달의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 시적허용

이건 중학교 때 배웠을텐데요 ㅎㅎ

원래 맞춤법과 다르게 쓴 것을 모두 다 시적허용이라고 합니다.

ex)노오란, 파아란, 머얼리

♣ 역설(paradox) 逆說

표현과 표현이 대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1. 상반된 이미지의 대립 ex) 강철로된 무지개

2. 모순 ex) 님은 날 떠났지만 난 님을 보내지 않았어 흥

주의 - 동음이의어 중에 "힘주어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역설(力說)도 있으니 조심
力說은 당연히 비문학에서 쓰이겠죠? ㅎㅎ

♣ 영탄

감탄사나 감탄어미를 사용한 거

ex)아 = 어즈버 = 어와

~구나. 여태껏 몰랐던가!

◆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는데요

의성어는 소리를 나타낸 말 ex) 개굴개굴

의태어는 모양이나 움직임을 나타낸 말 ex) 펼쩍펼쩍

◆ 의문의 형식

말 그대로 물어보는 형식이예요.

~인가. ~일까. ~이나. 이런 것들이요 ㅎㅎ

의문어미를 쓰는 건 모두다 해당합니다.

하지만 설의에는 굳이 또 의문이라고 쓸 필요 없겠죠 ㅎㅎ

◆ 의인

사물(사람외의 모든 물체)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

ex) 개가 웃는다

◆ 자연물

인공물과 반대되는 의미로 자연에 원래부터 있던 거 ㅎㅎ

◆ 점층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중이나 강도를 점차 높이거나 넓히는 거.

예)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열 사람을 당하리라.

열은 백을 당하고, 백은 천을 당하며, 천은 만을 당하고, 만으로써 천하를 얻으리라'

이와 반대로 표현을 점차 줄여가는 것은 점강법.

예)

'천하를 태평히 하려거든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집을 바로잡으며,

집을 바로잡으려면 그 몸을 닦을지니라'

예시에서 보면 구조가 같거나 약간의 변용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수능에선 점강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청자설정

듣는 사람을 설정하는 건데요.

~야 라고 부르는 게 있으면 청자설정입니다.

청자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대화체 OK

ex) 추천사 -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

나 or 우리 or 내

즉, 1인칭 표현이 없으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 향토적

시골느낌 나는 걸 향토적이라고 하죠 ㅎㅎ

흙, 사투리 이런 구수한 느낌 이런 거 있자나요 ㅋㅋㅋ

♣ 형상화(=시각화, 구체화, 구상화)

형체가 없는 걸 형체를 만들어 주는걸 말합니다

ex) 와사등 - 긴 여름해 황망히 날개를 접고

시간을 새에 빗대서 보이게 해줬죠 ㅎㅎ

한을 뿌리삼고 눈물로 가지삼아

이것도 한이라는 개념을 나무로 형상화 시켰죠 ㅎㅎ

그렇지만 형상화가 꼭 형체가 없는 것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위의 예에서 '눈물로 가지삼아'에서 보듯이

형체가 있는 것도 눈에 보이게, 형체가 있게 만들어주면 그것도 형상화입니다.

♣ 화자의 의지

주로 어미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해야겠다. ~해야지 이렇게 있으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시사철 부끄러운 운동주 시에서 많이 보이죠

♣ 활유

무생물을 생물에 빗댄 표현입니다.

ex)산이 달린다. 돌이 숨는다.

개념설명은 여기까지구요 ㅎㅎ

이 다음꺼는 표현법 매뉴얼이에요

위에서 개념설명한 것 중에 몇 개는 뺐는데요

시를 읽으면서 이 매뉴얼들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으면

옆에다 표시하시면 됩니다 ㅎㅎ

♣ 매뉴얼

각운

감각적 이미지

감정을 직접 드러냄

감정이입

계절감

공감각(=감각의 전이)

관용구(관용적인 표현, 관습적인 표현)

대구

대조

대화체

도치

반복/변용

반어(irony)

비유와 상징

상승/하강이미지

색채대비

색채어

설의법

수미상관

시간의 흐름

시적허용

역설

영탄

음성상징어

의문의 형식

의인

점층

청자설정

향토적

형상화

화자의 의지

활유

밑줄 친 걸로 먼저 연습하시구요.

사실상 거의 다네요 ㅋㅋ

익숙해지면 나머지 것들도 같이 찾으면 됩니다 ㅎㅎ

이제 시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개념설명은 끝났으니 실전으로 들어가보죠 ㅎㅎ